

## 경북도, 전기차 부품 산업 경쟁력 또 한 단계↑

등록 2023.04.17 14:34:35

### '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' 사업 선정



[안동=뉴시스] 경산지식산업지구. (사진=뉴시스 DB) 2023.04.17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안동=뉴시스] 류상현 기자 = 경북의 전기차 부품 산업 경쟁력이 또 한 단계 올라설 기반이 마련됐다.

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'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'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 사업비 222억원(국비 96억원 포함)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.

xEV란 하이브리드 전기차(HEV)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(PHEV), 배터리 전기차(BEV), 수소연료전지 전기차(FCEV) 등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를 말한다.

이번 공모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,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산 하양 지식산업지구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총 222억원(국비 96억원, 도비 38억원, 경산시비 88억원)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.

사업 내용은 ▲전기차 보호차체 충돌안전 시험동(1603㎡) 건립 ▲설계·해석, 제작, 평가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공동 활용 장비(9종) 구축 ▲보호차체 핵심부품 사업전환 및 기술 고도화 기업 지원 등이다.

경북도는 이 사업이 970여명의 고용 창출과 20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도는 경산 지식산업 지구에 있는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의 무선 충전 장비 등 10종으로 전기적 안전성 시험과 전자파 실증장비를 활용한 EMC(전자파 적합성)/EMI(전자파 간섭) 시험, 미래차부품기술센터의 피로내구시험기 등 3종을 활용한 안전성 시험도 지원할 계획이다.

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"전기차 보호차체 충돌안전 지원 사업이 경북 자동차부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증대, 고용창출, 미래차 사업전환에 도움이 될 것"이라며 "기업들이 미래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 신성장 동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pring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